

시류음

전승의 위훈 영원히 빛나라

영생의 삶은 어디서 빛나는가

강은별

퍼지는 해살같은 이 통선은
그대들을 품어안은 사랑의 넓은 품
석박산, 영생의 이 언덕에서
가슴껏어 불러보는 려사들이여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웅들이여

전쟁도 많은 이 행성
차디찬 흙에 쓸쓸히 묻혀져버린
그런 명혼들 수없이 많다 하라
하지만 이 땅의 려사들은
조국, 어머니조국이 품에 안았구나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결은
려사들의 묘비를 쓰다듬는 손길
인듯
비둘에 비쳐드는 따스한 해살은
진함없는 사랑이런듯
구진한 그 정은 세월마저 멈춰세워
려사들의 청춘을 고이 빛내주고
있나니

불라는 땅, 포연서린 하늘과 바다에
피를 뿌리고 간 병사를 잊지를 못해
그 하늘과 땅, 바다를 다 더듬어

한사람한사람 모두 찾아
뜨겁게 품어준 은혜로운 품!

아, 떠나간 자식은
남아준 어머니의 가슴에 묻힌다
지만
조국의 아들딸로 그 품에 안겨
후손들앞에 긍지로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여

수령님과 장군님 다 아시는 려사들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이름을
심중에 깊이 새겨안으신 우리 원수님
세월과 더불어 영원한 조건의 영웅
들로
값 높이 내세워준 고결한 의리의
세계여

사람은 죽어 땅에 묻힌다 하라
하지만 전화의 려사들은
조국의 품에 어버이품에 안기었으니
이보다 행복한 삶 어디 또 있으랴
아, 원수님품에서 빛나는 영생의 삶
이여!



영웅메달을 쓰고 또 쓸어본다
려사가 목숨으로 지켜낸 강토
소녀는 이 땅을 정히 쓸어보는것이다

불멸할 전승세대 그 정신을 이어
가는
후손들 손길에 금별은 영원히 빛나다

로병은 임무수행중에 있다

리철준

오늘도 여기 석박산기슭
잊지 못할 전우들 찾아 나는 왔다
소리쳐 부르며 금시라도
부분대장이 왔다고 반겨 일어날듯
싶은
분대장동지여, 분대의 꼬마전사여

마치 결전의 전초에 서있는듯하구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있으니
고지를 사수하던 7일날 7일밤
그 치열한 싸움의 나날들이
어제런듯 이 눈가에 비껴드누나

파편에 한말을 잃은 분대장
나는 그의 눈에서 절망을 보지 않았다
수류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 때
불기둥이 터쳐올린 그 폭음은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라!》
부분대장 나에게 남긴 명령 아니었던가

분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꼬마전사
아직은 인생에 끝이 있다는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나 어린 그
원수의 동가슴을 찌르고 쓰러지면서
남긴 말도 그 한마디였거니

아, 조국위해 생을 아끼지 않은 전우들
죽음보다 두려운것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것
지켜야 할 고지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조국이였다

전화의 분대장과 꼬마전사
돌아오지 못한 고지의 전우들
그들이 나에게 피라게 남겼던
《원수들을 끝까지 소멸하라!》
준절한 그 웨침 이 가슴을 치거니

그렇다, 로병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70년세월이 흘러 산천은 변했어도
이 땅에 침략자 미제가 있는한
전화의 정신 승리의 전통 물려주
어야 할
성스런 임무가 나에게 있다

백발을 얻었어도 나는 로병
그 끝나지 않은 임무앞에
나는 마음의 군복 벗을수 없거니
전우들이여, 조국이여
민어달라 생이 다하는 마지막날까지
이 로병은 임무수행중에 있음울!

영웅의 모습

김영일

피를 마쳐 생명을 바쳐
불멸할 군공 이 땅에 남겼건만
한장의 사진조차 남기지 못했구나
오, 영웅의 비둘
사진없는 빈자리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사진이
어찌 그에게라고 없었으랴
그러나 사진마저 깡그리 불태운
전쟁
영웅의 가정도 그의 전우들도
전쟁의 불속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늘

영웅의 사진은 없어도 보여온다
한치의 땅도 원수에 바쳐내주지
말라!
피의 철구 터치던 려사의 모습이
홍탄에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
적진으로 육박하던 피것은 그 얼굴이

포연에 그슬리고 파편에 찢기여
남아준 부모도 알아보기 힘들었을
모습
하지만 비발치는 총탄을 뚫고
육탄이 되어 부대의 들격로를 연 영웅

불사신 그대를 조국은 기억하거니
가슴에 혼장 가득히 석박산을
찾는
로병들의 모습에서 그려보는 그대
얼굴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든
승리상의 그 병사의 모습에서
영웅이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본다

비록 비둘엔 사진없는 빈자리여도
가슴에 새겨지는 강의한 려사의
모습
사진은 남기지 못했어도
위대한 전승의 전통을 물려준
영웅의 모습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
리니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충충도 생명을 바친 전화의 영웅들
그들의 모습은 한모습
가슴에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오, 전화의 려사 영웅의 모습이여!

소녀와 영웅 메달

김태룡

이슬먹은 잎이 햇빛에 고운
꽃 한송이 들고 소녀는 서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한 비둘앞에
안간적 없고 응석 한마디 받아준적 없는
할아버진 사진속에 말이 없다

멀리 간돌 알았던 1950년대
이렇게 할아버지곁에 가까이 있었어
어린 가슴에도 깊은 생각 불러내어
소녀 또한 말없는 침묵의 이 상봉
아, 꽃도 말이 없구나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근위중사
피를 뿜은 그 가슴을 대신해
비둘이 달고있는 영웅의 금별
굳고굳은 들척터 그리도 역세였을
려사의 가슴 소녀는 마음에 더듬어
보는가

어린 손으로 정히 쓸어본다
영웅이 달아 못본 금별을
뉘달리 웃음 짓고 똑한 섬미었다지만

최후에는 그 엄한 눈가에
미소를 띤 구리빛 얼굴 어루스나

마지막탄환마저 원수에게 날리고
육박전에 비껴든 총창을 쓸어본다
양지바른 고지의 그 어디엔가
할아버진 심었다는 분비나무 바늘잎
들격전에 추켜들었다는 공화국기발
자락도

전쟁 3년 려사가 멀친 위훈의 나날은
금별을 정히 쓰는 후손의 손길에
이렇듯 생생히 오늘에도 이끌려오고
심장에 뚫어번지던 려사의 붉은 피는
메달에 대인 저 해맑은 손을 따라
소녀의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거니

영웅의 넋을 고이 간직하려는듯
금별을 쓸고쓰는 나 어린 손녀
메지 않구나 그 작은 손을
그렇게 안아보는 금별의 무게
어이 잇으랴 전승세대의 그 위훈을

여기서 총을 틀어잡으라

김태룡

수많은 려사들 이들중에
어느 영웅의 총이 에 놓이었는데
석박산렬사묘의 한자루 따발총
목숨과도 같았던 려사들의 총
놓여있다 공화국기발 기폭우에

가중스런 원수를 조문에 잡고
퍼붓던 그 맹판 탄발사격의 총성
홀려간 세월을 흔드는 메아리더나
쿵쿵 가슴치는 심장의 박동소리로
들려오는 열적의 총소리 총소리...

아직도 달아오른듯한 총신에선
단내가 물씬 가슴에 흘러들듯싶은데
총가목이며 부력을 쓸어보면
손에 흥건히 젖어들듯싶은
아, 려사들의 진한 피와 땀

삼가 이 총을 두손에 받들어
어느 용사의 비둘앞엔 놓는다면
금시 땅을 박차고 일어날것만 같아라
적진으로 육탄되어 뛰어들던 그때처럼
들격전에 내달리던 그 나날처럼

살아돌아오지 못한 용사들
승리와 함께 넘겨준 전장의 총대

이 총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고향집, 소중한 조국이
있고
놓으면 끄기는 운명의 숨줄이기도
했으니

이 철리가 만장탄된 총대
려사들이 물려주는 조국수호의 총대
다 쓰지 못한 총탄 분노의 불로 뿜
으랴
려사들이 넘겨주고 후세들이 넘겨
받는
오, 숭엄한 총대의 계승이여!

사랑으로 버려안은 총오가 있고
중요를 터쳐 지켜낸 사람이 있는 곳
피를 물고 날뛰는 원수들
깡그리 남김없이 쳐갈길 때까지
영웅들의 려전에 놓아놓수만 없는 총

려사묘를 찾는 사람들 모두가
가슴에 힘껏 그러안은 전화의 총대
비록 총은 한자루여도
천만이 잡고도 남을 중오의 무기는
여기 석박산에
천자루 만자루 쉼수 없어라

로병들에게 하신 정깊은 당부

주제110(2021)년 7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로병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하여 평양체육관에 나오
시였다.

주름진 두볼에 흐르는 눈물을 연
방 닦으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로병
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촬영대까지로 다가오시자 추우쳐오
르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이께
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그이께 저마끔 대
회과정에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
기도 하시고 한 전쟁로병이 허물없이 드
리는 소청도 기꺼이 받아주기도 하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
을 우리처럼 가슴설레이는 로병들속
에는 아흔살이 가까와오는 오늘까지 교
단에서 예술인재후비육성사업에 지혜
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녀성전쟁로병
교육자도 있었다.

사실 그는 방금전까지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릅없이 안겨드는 로병
들을 보면서 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나무람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앞
에 이르시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그이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뵈고싶었
습니다.》
그가 목메인 소리로 아뢰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
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너무도 짧지만 같은 영광을 받아안은

로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시
간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방금전의
마음속다짐도 다 잊고 그의 따사로
운 손길을 놓칠세라 두손으로 더 꼭
마주잡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로병의 손을
그냥 꼭 잡으신채 귀가에 대고 건강하
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로병이 크나큰 행복감에 휩싸여있는
데 그이께서는 그를 더 따뜻이 품어안
으시며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건강하십시오!》
거듭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깊은 당부에 녀성전쟁로병은 그만
그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뜨거
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활
영대에서 다른 촬영대로 걸음을 옮
기실 때마다 자신개로 물밀듯이 안겨
드는 수많은 로병들의 손을 한사람
한사람 정겹게 잡아주시며 건강하
라고 절절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였다.
《건강하십시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부에는
준엄한 전쟁의 3년간 피로써 사랑하
는 조국을 영예롭게 사수한 고마운
은인, 대를 두고 이어갈 영웅정신을
마련하고 오늘날 그 너으로 새세대들
을 이끌어주는 참다운 스승, 훌륭한
혁명선배인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
을 금방석에 편히 앉혀 오래오래 떠
받들고싶으니 열화같은 진정이 담겨
져있었다.

본사기자

얼마전 나는 TV에서 한 로
병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보
게 되었다.

편집물의 내용은 한 전쟁로
병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후방에 있는 사랑하는 처녀
와 주고받은 편지에 대한 이
야기였다.

병사는 싸움속에
서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고향과
처녀에 대한 사랑
의 진정을 담은 편지를 후방
에 있는 애인에게 보냈었다.
자기의 불같은 마음이 비껴
있는 전초가의 들꽃도 함께,
총각의 편지를 받은 처녀
는 후방의 소식과 함께 자기
의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회
답편지를 전선의 병사에게 보
내었다.

병이 바래고 보물이 일어
여리군데 찢어진 그 편지를
전쟁로병은 바로 70년세월이
흐르도록 고이 간수하고있
던것이다.

포연이 흐르는 전화의 나날
전초가의 병사와 후방의 처녀
가 주고받은 편지!

바로 거기에는 사랑과 행
복,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
을 짓밟고 빼앗으려는 원수들
을 기어이 복수하고 정든 고향
향산천과 조국을 지켜 빛나

적의 의지와 용맹을 날게 하
고 위훈의 자양분이었을 그
리고 처녀에게는 뼈를 지미는
슬픔을 이기게 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선원호사업
에 앞장서도록 힘껏 떠밀어주
었을 그 편지.
나는 그편이었다.

그 사랑으로 죽음도 이겨냈으
며 원수들을 쳐물리쳤다.
정든 고향의 부모처자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사랑을 담았
고 승리하고 돌아올 녀를 기
다리는 처녀와도 사랑을 나
누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전선의 병사들과 후방의 인

수필 로병이 간직했던 한장의 편지를 보며

는 승리의 위훈을 안고 돌
아가려는 불같은 맹세가 어
려있었다.

처녀가 보낸 회답편지의 글
줄마다에는 전선의 병사에 대
한 사랑의 감정과 함께 아
비지와 오빠 그리고 언니와
동생을 앓아간 미제침략자들
에 대한 불타는 증오, 포악
무도한 원수들을 징벌하고
전승용사가 되어 돌아오라는
처녀의 간곡한 당부가 어려
있었다.

병사에게는 원수에 대한 열
망이
어려웠고
원수에게 퍼붓는 증오와 분
노의 총성으로 자기 고향과
처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 불
태운 전화의 용사들.
그리고 정든 녀와 멀리 떨
어져있어도 전쟁승리를 위하
여 충충도 사랑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후방의 처녀들.
그 사랑의 힘으로 병사들
과 인민은 조국을 지켰고 위
대한 전승의 7.27을 안아온
것이다.
소개편집물은 비록 길지 않
았어도 나에게 준 여운은 참
으로 컸다.

김혜정

